

Motorcycle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시 구강악안면 부상에 관한 조사

Oral Health Index According to Influencing Factors on Dental Caries

신 두 호 /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구강보건학과

■ 연구배경 및 목적

Motorcycle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면접법을 통하여 악안면 부상과 부상방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Motorcycle 운전자들의 구강 악안면 부상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

■ 연구방법

면접 / 설문법

본인이 응답하기를 수락한 자원자에게 훈련된 조사요원 1인이 담당하여 설문을 주고 그 내용과 기준을 설명해주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. (설문법의 불성실 답변, 및 오차를 줄이기 위해)

■ 연구결과

조사 대상자들의 Motorcycle 교통사고 경험률은 87%로 조사되었고, 운전경력이 6~10년 인 자가 가장 사고율이 높았다.

Motorcycle 교통사고시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목(30.2%), 팔/손(18.8%), 다리/발(20.5%)로 조사되었으며, 얼굴을 다친 자가 (6.5%), 치아를 다친 자가(4.4%)로 조사되었다.

치아와 얼굴을 다친 후 후유증을 호소한자의 비율이 5.4% 및 7.4%로 조사되었기에, Motorcycle 운전시에는 마우스피스나 마우스가드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.

■ 결론 및 제언

Motorcycle 운전 중 사고로 외부의 충격 시 외력을 효과적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마우스가드가 마우스피스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 되었으며, 헬멧에 끈으로 부착된 형태의 마우스가드의 개발이 권장되었다.